

4》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 계속 정체



8》 아이스하키팀 사실상 해체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접수 공고

- 대상 : 교직과정이수예정자로 선발돼 소정의 교직과정을 이수하고 2015년 8월에 졸업예정인 학생
- 접수기간 : 2015. 5. 1(금) ~ 2015. 5. 15(금)
- 제출서류
-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소정양식) 1부
- 교직과정 복수전공자(공통과학, 공통사회 연계전공 포함)는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를 전공별로 각각 제출
- 보건교사(2급)·영양교사(2급) 무시험검정 신청자는 간호사 면허증·영양사면허증 원본 제출(제출 즉시 복사 후 반원함)

지난해 졸업 백분율 점수 89.2점

외부언론 '학점 인플레 심각한 대학'으로 지목 … 각종 평가에도 악영향

대학알리미① 학점분포

이진우 기자 urua93@knu.ac.kr

대학정보공시 사이트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에 '4월 공시내용'이 30일 게재됐다. 공시내용은 전공·교직·교양·졸업생 성적평가 분포, 교원 강의담당 비율, 학생 규모별 강좌 수, 등록금 현황, 국유 공유재산 확보 현황 등이다. 각각의 내용을 분석한다. <관련기사 4·5면>

우리학교의 지난해 졸업자 평점 평균이 4.3점 만점에 3.33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과별 졸업 백분율 점수평균(졸업 백분율 점수)은 89.26점으로 지난해 89.16점보다 0.1점 높아졌다. 지난해 성적 분포와 관련한 논란 이후 관련 통계에 관심이 높았던 상황에서 2012년 이후 계속 상향추세인 점을 확인하게 됐다. '학점인플레이션'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이 보이는 지점이다.

졸업 백분율 점수는 우리학교와 유사한 규모의 8개 사립대학(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성균관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국어대, 한양대) 중 세 번째로 나타났다. 우리학교보다 졸업 백분율 점수 평균이 높은 대학은 한국외국어대와 한양대로 각각 91.16점과 89.33점이다.

재학생 성적분포도 도마 위에 올랐다. 재학생 B학점 이상 취득 비율이 가장 높은 서울대(82.9%)에 이어 우리학교가 81.4%로 두 번째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B학점 이상 취득 비율은 지난해 2학기 기준 ▲전공과목 80.4% ▲교양과목 80.5% ▲교직과목 96.7%였다. 같은 해 1학기나 지난 학기들에 비해서는 낮아졌지만 당장 언론에서는 우리학교를 '성적 인플레가 심각한 대학'으로 지목하는 상황이다.

미래정책원 학술진흥팀 우지연 팀장은 "우리학교에 영어강의, 실

험·실습, 군사학, 교직 등의 절대평가 수업이 절반 가까이 된다"며 "이런 과목에서 학점이 상향 평가되는 경향이 있다"고 원인을 분석했다.

특히 우리학교의 성적평가제도에 따르면 상대평가의 경우 B+학점 이상은 40%의 학생만 받을 수 있다. 하지만 2014학년도 2학기 기준으로 전공과목에서 B+ 이상 학점을 받은 학생의 비율은 50.9%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과목에서 B+ 이상 성적을 받은 학생이 높은 학과를 현행 학사제도 기준으로 산출한 결과, 대체로 예·체능계열의 학과들이 상위로 랭쳤다. 골프산업학과가 75.1%의 비율로 B+ 학점 이상을 받은 학생 비율이 가장 높았다. 그 뒤로 무용학부, 스포츠의학과, 기악과, 작곡과가 뒤를 이었다. 반대로 B+ 이상 성적을 받는 비율이 가장 낮은 학과들은 이·공계열이었다. B+ 이상 성적을 가장 적게 주는 학과는 컴퓨터공학과였다. 뒤를 이어 정보전자신소재공학과, 간호학과(야간), 수학과, 응용물리학과 등이었다.

이밖에 교양과목의 경우 47% 정도의 학생이 B+ 이상의 성적을 받았고, 교직이수 교과는 90%가 넘는 학생에게 B+이상의 성적을 부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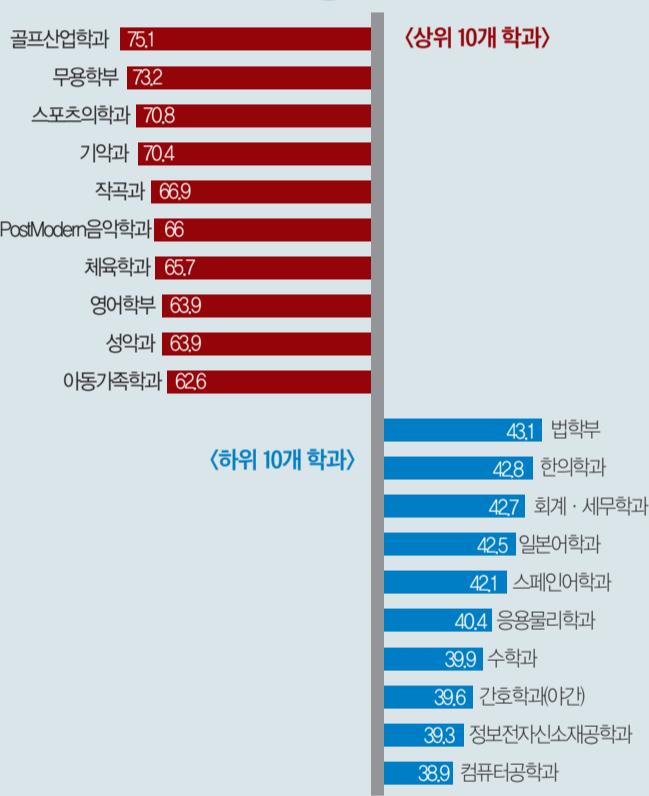
지난달 28일부터 대학구조개혁 면접평가가 시작된 상황에서 학점 분포로 인한 평가불이익에 대한 걱정도 나온다. 평가지표가 조정됐지만 '엄정한 성적 부여를 위한 제도 운영의 적절성' 항목에 여전히 4점이 부여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우 팀장은 "대학구조개혁 인터뷰 평가에서도 '학점 인플레이션'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며 "표면적으로는 성적 관련 내용을 평가요소에 넣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5면으로 이어짐

2014 졸업생의 졸업 성적 분포

학교명	학과별 졸업 백분율 점수 평균
건국대	88.51
경희대	89.26
고려대	89.09
성균관대	86.34
연세대	89.04
중앙대	87.57
한국외국어대	91.16
한양대	89.33

2014 B+ 학점 학과별 비율



2014 전공과목 성적평가 분포

시기	B+학점 이상 비율
2012-1학기	52.9
2012-2학기	54.6
2013-1학기	52.6
2013-2학기	52.8
2014-1학기	51.8
2014-2학기	50.9

보이지 않는 문 - 도의 나들목

후마니타스칼리지 - 대학주보 공동기획, 고전의 사계 52

홍승태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도덕경》은 인생론, 사회정치론, 우주론을 변주하는 철학시(哲學詩)다.

사람들은 있음(有)만을 추구하고 없음(無)은 애써 없애버린다. 그래서 있음과 없음은 별개의 것, 모순 관계가 된다. 그러나 있음과 없음이 하나의 혼재(混在)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그것은 무슨 색깔을 띠고, 무슨 소리를 낼까? 《도덕경》은 그것이 가물가물(玄)한 색깔을

띠고, 무언의 말을 한다고 말한다. 그것이 만물의 온갖 묘함(본연의 상태)을 넣는 문이며, 이런 이치를 관조하는 것이 '밝음(明)'이라고 말

한다. 《도덕경》에서는 다차원의 '문(문)'을 언급한다. 우주가 생겨나는 문, 인간을 포함한 천지 만물이 흘러나오는 동시에 흘러들어가는 문이 있다고 한다. 그 문은 형체가 없기 때문에 볼 수 없는 것이지만, 그것이 천지만물의 생사를 결정짓는다. 이 '문 아닌 문'에는 빛장이 없지만 억지를 부리면 닫혀버린다.

그것이 생활 주변의 기물에 비유된다. "문을 내고 창을 뚫어 집을 만드는데, 그 빈 곳에 집의 쓰임새가 있다. 그러므로 있게 함은 이로 움이 되고 없게 함은 쓰임새가 된



한다. 《도덕경》에서는 다차원의 '문(문)'을 언급한다. 우주가 생겨나는 문, 인간을 포함한 천지 만물이 흘러나오는 동시에 흘러들어가는 문이 있다고 한다. 그 문은 형체가 없기 때문에 볼 수 없는 것이지만, 그것이 천지만물의 생사를 결정짓는다. 이 '문 아닌 문'에는 빛장이 없지만 억지를 부리면 닫혀버린다.

그것이 생활 주변의 기물에 비유된다. "문을 내고 창을 뚫어 집을 만드는데, 그 빈 곳에 집의 쓰임새가 있다. 그러므로 있게 함은 이로 움이 되고 없게 함은 쓰임새가 된

알림

대학주보 SNS로 더 다양한 대학주보를 만나보세요!

- 페이스북 페이지 <https://www.facebook.com/khunews>
- 인스타그램 <https://instagram.com/khunews/>
- 페터스트리트 <https://www.pinterest.com/daehakjubo/>
- 유튜브 '대학주보'
https://www.youtube.com/channel/UC8t9_LCfmJ7dxw4THjUR0YQ
- 구글플러스 '경희대 대학주보'
<https://plus.google.com/u/0/108802383036836051070/posts>

특별기고

클라우드 컴퓨팅

허의남 (컴퓨터공학 교수) ▶ 7면



시선

사설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 따라 낮아지는 교육 만족도

4월 30일 발표된 대학알리미 공시자료에서 2015년 1학기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이 지난해 대비 불과 0.6%p가 개선된 48.9%로 나타났다. 이는 주요 경쟁대학인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등에 비해 10%p 가량 낮은 수치다. 사실 가장 이상적인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이 어느 선인지에 대한 절대적 기준치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이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이 각종 대학 평가의 주요 지표로 활용되기에 이 문제는 종종 평가 지표 관리자원에서 다뤄지곤 한다. 하지만, 우리가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 문제에서 정말로 중요하게 읽어야 하는 것은 평가지표로서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 만족도'와 연관된 문제다.

2008년 이후로 우리 대학은 해마다 많은 수의 전임교원을 총원하며 이를 대내외적으로 널리 홍보해왔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은 지속적으로 50%를 밟고 있다. 더구나 이러한 현상은 비전임교원 강의비율이 높은 후마니타스 칼리지 개설강좌가 2014학년도 이후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도 똑같이 이어지고 있다.

자못 이해하기 힘든 이 현상은 우리학교가 2008년부터 야심차게 추진해온 '전임교원 책임시수 조정 정책'에서 기인한다. 우리학교의 전임교원 연간 책임시수는 지난 2008년에 18시수에서 15시수로, 2011년에 다시 15시수에서 12시수로 두 번에 걸쳐 축소돼왔다. 당시 대학평가에서 교수 연구실적이 전체 평가 순위를 좌우할 정도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던 바, 교수의 강의 부담을 줄여 연구 환경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였다.

그렇다면 그 결과는 어떠했는가. 단적으로 말하자면, '전임교원 책임시수 조정 정책'은 대학의 두 기반인 '교육'과 '연구' 중 그 어느 분야에서도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실제로 대학 측이 지난 해 2월 내놓은 '대학 행정·재정 발전 특별위원회 연구결과보고서'는 '책임시수 축소에도 연구성과가 미비'하고 '비전임교원 강좌 증가로 학생의 강의 만족도가 저하'되었다고 자체 진단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대학 측은 스스로 벌여놓은 일을 수습하지 못하고 있다. 위 '보고서' 대로라면 이번 2015학년도에는 책임시수가 상향 조정되었어야 하지만, 그런 소식은 그 어디에서도 들리지 않는다. 이런 가운데 교수사회는 책임시수 상향조정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결국, 머뭇거리는 대학과 강경한 전임교원 사이에서 피해만 보고 있는 것은 교육의 수혜자여야 할 학생들뿐이다. 지난 해 국가고객만족도지수(NCSI)조사에서 우리학교의 만족도가 예년 대비 3계단 하락한 5위까지 추락한 것은, 지난 수년간 질적으로 저하된 교육환경에 대한 학생들의 답변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누적되는 학생들의 불만족은 반드시 부메랑이 되어 학교로 되돌아간다는 점을, 대학과 교수사회는 인지해야 한다. 지금과 같은 상태가 계속된다면 학생사회와의 교육 불만족도는 계속 높아질 것이고, 이는 결국 여론화되면서 대학 바깥으로 퍼져나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이후로 그 어떤 우수 학생이 우리학교를 지망하게 될 것인가?

이제는 대학과 교수사회가, 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한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대안을 밝혀야 할 시점이다.



이주의 주제 - 총여학생회 존폐 대자보 논란

“제가 그런걸 어떻게 이야기해요!”

이민교기자
mingyo@khu.ac.kr

력한 것은 “아니, 폴펜(꼴통 페미니스트)으로 몰리게 그런걸 어떻게 이야기해요”라는 걱정이라고 본다. 여학생으로서 여학생조직을 논하는 순간부터 특정 이념, 논리, 진영으로 몰릴 수 있다는 두려움말이다. 그 앞에서, 침묵은 가장 편리한 선택지였을 것이다.

현재 쟁점은 몇가지로 좁혀볼 수 있다. ‘총여는 무엇을 위한 조직인가?’, ‘우리학교에서 이런 총여는 필요한가?’, ‘총여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자치회비나 운영정책 등 시스템 상 문제는 없는가?’, ‘총여를 성평등위원회와 같은 기구로 바꾸는 것이 낫지 않은가?’ 정도다.

그리고 현재 이 질문에 대해 내걸리는 저마다의 ‘답변’들은 너무나 쉽사리 진영논리나 차별적 언사로 물리고 있다. 논쟁에 ‘감정’이 뒤섞이면서 벌어지는 풍경이다. 그 와중에 ‘몰리는 것’을 두려워 하는 많은 ‘입장들’은 침묵 뒤로 숨어들고, 결국 이 논의는 몇 해 째 되풀이되어 온 지난한 이야기를 다시금 반복할 뿐이다.

〈민상토론〉에서 사회자는 “본코너는 개그콘서트 조준희PD와는 관계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라고 말한다. 이 대사는 코미디마저 정치문제로 비화시키는 정부에 대한 풍자인 셈이다. 재밌다. 하지만 이에 빗대 “이 칼럼은 대학주보와는 관계가 없음을 말씀드린다”고 쓸수는, 아마 없을 것이다. 대자보, 또 공개된 공간은 감정에 기반해 누군가를 몰고 몰리는 곳이 아니라, 합리적 이성에 기반해 서로의 논리를 교류하는 장이기 때문이다.

흥미로운 점은 총여가 대자보를 붙이기 전까지의 모든 대자보는 남학생이 게재했다는 것이다. 총여가 여학생 대표조직이고, 이 논쟁의 핵심이 여학생과 남학생 사이의 ‘성차별’ 논란임에도 유독 여학생은 침묵했다. 왜 그랬을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그중에서 가장 유

서울캠 2차 확대운영위원회

1학기 자치회비 결정

미디어 여론동향 2015. 4. 13 ~ 5. 3

여론동향팀 khunews@khu.ac.kr

【서울】 지난 27일 개최된 제2차 확대운영위원회(학운위)에서 1학기 자치회비 분배가 결정됐다.(1학기 자치회비 분배 결정 - 학생 1인당 총학 2,650원, 단과대학 학생회 3,300원/대학주보 온라인, 2015.4.28) 1학기 자치회비 분배 안건은 지난 전학대회에서도 상정됐지만, 성원 출석율이 저조해 의결하지 못했던 바 있다. 이번 학운위에는 전체 성원 108명 중 62명이 참석했으며, 보고안건과 심의 및 의결안건 자유발언 순으로 진행됐다. 핵심안건이었던 자치회비 분배는 전년도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학생 1인당 자치회비 9,500원 중 총학생회 2,650원, 단과대학

학생회 3,300원, 특별기구 3,550원을 각각 배정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특별기구 중 고학년집위원회는 기준의 예산배정액 800원에서 50원 줄은 750원을 분배 받는 것으로 조정됐다. 후마니타스 칼리지 대학생위원회는 200원에서 250원으로 자치회비 분배额度이 늘었다.

프로농구 인천 전자랜드 출신 김세중 동문이 프로농구 선수로는 처음 교수가 됐다.(인천 전자랜드 출신 김세중, 프로농구 선수 최초로 교수 임용/국민일보, 2015.4.29) 김 동문은 지난 3월 1일자로 경북 구미의 경문대 사회체육학과 교수로 임용됐다. 김 동문은 2002년 우리학교를 졸업한 뒤 신인 전체 15순위로 인천 SK(현 인천 전자랜드)에 입단후 5시즌을 뛰었다. 선수생활과 공부를 병행한 김 동문은 2007년 석사학위를 땄고, 은퇴 후 2011년 국민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맞춤형 인재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우리학교 전자·전파공학과 김선국 교수 연구팀이 전자회로의 기본부품인 트랜지스터의 광반응 성능을 증폭시키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경희대 연구팀, ‘트랜지스터 광증폭 기술’ 개발/뉴스1, 2015.4.30) 이번 연구결과는 신소재 분야 학술지 ‘어드밴스드 머티리얼스’(Advanced Materials) 4월 1일자 표지논문으로 선정됐다. 전자기기의 성능과 직결된 트랜지스터는 전기신호를 증폭시키거나 전류흐름을 조절하는 역할을하는데, 광반응 성능이 우수할수록 성능도 향상된다. 연구팀은 높은 전자이동도와 유연성을 가진 다층 이황화몰리브덴 기반의 박막 트랜지스터를 이용해 기준보다 광효율을 약 1,000배 향상시킬 수 있었다. 특히 이를 투명하고 휘어지는 터치스크린에 응용할 수 있어 ‘인터랙티브 디스플레이’(Interactive Display)의 상용화를 한 발 앞당겼다는 평가다. 김 교수는 “인터랙티브 기술이 자연스럽게 구현되기 위해서는 광트랜지스터의 효율이 좋아야 한다”며 “광반응 성능을 증폭시킨 이번 연구결과를 활용하면 인터랙티브 기능이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 국민대 교수와 윤영기 캐나다 워털루대 교수와 함께 참여한 이번 연구는 미래창조과학부의 헬스케어 원천기술과 미래유망 융합기술 파이오니아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됐다.

사람들이 하는 ‘말’에는 인격과 가치관이 녹아있다.

세시봉

백승철 (편집장)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말 없는 말이 천리 간다’,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 등 우리나라 속담에는 ‘말’과 관련된 것이 많다. ‘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말’은 한번 뱉으면 주워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할 때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한다.

최근 개그맨 장동민씨가 과거 자신이 진행하던 팟캐스트 방송에서 했던 막말로 인해 구설수에 올랐다. ‘여자들은 멍청해서 남자한테 안돼’, ‘참을 수 없는 건 처녀가 아닌 여자’ 등 여성비하 및 거친 표현으로 여론의 뜻매를 맞았다. 결국 출연하고 있던 ‘무한도전’ 식스맨 프로젝트에서 자진하차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사과했다.

‘말’이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이유는 ‘말’에는 그 ‘말’을 하는 사람의 인격과 사고가 드러나기 때문이다. 별 생각 없이 무심코 한 말에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생각이 고스란히 담겨있기 마련이다. 개그맨 장동민의 막말논란과 관해 ‘나쁜 뜻도 아니고 웃기려고 한 말인데 뭐가 그렇게 심각하게 구나?’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단순히 웃기려고 한 말’이라고 하더라도 그 말에 대한 책임이 없는 건 아니다. 아무리 말을 하는 의도나 목적이 좋다 하더라도 내가 하는 말을 듣고 상대방이 기분 나빴다면 사과를 하는 게 맞다. 말은 하는 사람 입장에서가 아니라 듣는 사람 입장에서 판단해야 옳다.

이렇듯 말이란 것은 그렇게 가벼운 것이 아니다. 말은 ‘내’가 하는 것이지만,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온 순간부터는 ‘나’뿐만 아니라 그 말을 듣는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 한번 뱉은 말은 쉽사리 주워 담을 수도 없기 때문에 타인에게 하는 말은 더욱 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

지난달 27일 혜정박물관 김혜정 관장이 감사행정원 직원에게 폭언을 한 것이 노동조합(노조)의 성명서를 통해 알려지면서, 이후 세 차례에 걸쳐 성명서를 통해 양측간의 ‘설전’이 있었다. 하지만 그 이후, 혜정박물관 김혜정 관장은 이승한 부총장을 통해 폭언을 했던 해당 직원에게 사과의 뜻을 표했다고 한다. 해당 직원과 노동조합도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한다. 당사자를 직접 만나 사과를 했으면 더욱 좋았겠지만, 간접적인 형식으로 나마 유감의 뜻을 표하고 이를 받아들이기로 한 것은 참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감사행정원도 예정대로 절차에 따라 감사를 진행하고 혜정박물관도 감사절차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한다. 노동조합과 혜정박물관 사이에 있던 ‘폭언’ 논란이 수습되는 모양새다.

사람들이 문제를 느끼는 것은 ‘폭언’이라는 행위 그 자체도 잘못됐지만 김 관장이 한 ‘폭언’ 속에는 김 관장이 가진 가치관이 반영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노조는 양 캠퍼스 학부, 대학원 총학생회와 교직원, 교수의회도 참여하는 ‘존중문화협의문’을 발표하기로 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내에 따뜻한 배려와 이해의 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알림

대학주보에

당신의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대학주보는 늘 열려있습니다. 여러분이 겪은 모든 일을 이야기해주세요. 무엇이 라도 좋습니다. 사소한 추억부터 어려운 상황까지 함께 나눠주세요. 늘 당신의 옆에 있겠습니다.

http://www.mediakhu.ac.kr/khunews/inform_us_list.asp



교훈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경희대학교

대학주보

1955년 5월 12일 창간(주간)

발행·편집인 조인원 | 주간 김민진 | 편집장 백승철 | 제작·인쇄 중앙일보미디어디자인(주) 구독료 1년 1만원 | 구독 02-961-0093-4 | 주소 경기 02-441-7317(편집기획)

인터넷 대학주보 <http://media.khu.ac.kr> | 이메일 khunews@khu.ac.kr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회기동) | Tel 02-961-0093-5

국립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대명동 1732(서천동) | Tel 031-201-3230-2, FAX 031-204-8121



총여학생회(총여)가 지난 6번의 대자보 논쟁에 처음 입장을 밝혔다. 청운관 앞에서 학생들이 총여의 대자보를 읽고 있다

총여, 대자보로 입장 밝혔지만 존속 필요성에 대한 논란은 계속

총여학생회 대자보 논란

방누리 nurib423@khu.ac.kr

【서울】 총여학생회(총여)가 지난 27일〈우리시대 '김커피'에게 전하는 첫 번째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대자보를 게재했다. 이는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3일까지 계속된 총여의 존폐와 가치에 대한 '대자보 논쟁' 이후 총여의 첫 대자보다. 당시 대자보 논쟁에서는 학내 성폭력 문제부터 총여의 역할이나 전문성, 투표권 등 다양한 주제를 놓고 치열하게 논의가 이어진 바 있다.

총여는 〈우리시대 '김커피'에게 전하는 첫 번째 이야기〉를 통해 여성의 사회에서 살아가는데 겪는 어려움에 대해 언급했다. 사회적인 시선으로 인한 끊임없는 외모 가꾸기와 어두운 골목길에서 불안을 느끼게 되는 여성, 술자리에 오랫동안 함께하기 어려운 점 등을 들며 이렇게 만드는 사회적 분위기와 배경을 비판하고 이를 변화시키기 위해 총여가 필요함을 주장했다.

또한 '유대감이 높은 과동아리 집단 속

에서 불편한 감정을 느꼈을 때 쉽게 문제제기하기 어렵다'며 '이런 두려움이 차별과 잘못된 문화를 묵인하고 암묵적으로 동의하게 만들며 대학 내 성폭력·성희롱·성차별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총여는 대자보를 통해 '대학이 사회 속에 존재하고 대학의 구성원들이 사회에서 살아가는 한, 대학은 사회의 성차별로부터 청정지역이 될 수 없다'며 '대학이라는 사회에서 평등한 문화를 공유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총여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이는 〈총여학생회는 무엇과 싸우고 있습니까?〉라는 대자보를 게재했던 김영환(경제학 2011) 군을 비롯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여러 차례 지적된 총여의 존재이유와 역할에 대한 물음에 나름의 답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총여 김혜영(아동가족학 2012) 회장은 "김영환 군의 대자보가 게재되기 전 김 군으로부터 사전에 질문지를 받아 답변을 드렸었고 대자보를 통해 김 군의 견해뿐만 아니라 많은 학생들의 생각을 들을 수 있었다"며 "그동안 하고 싶은 말들을 구체적으

로 정리했고 사람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자보 논쟁을 통해 지적됐던 ▲총여의 남학생 자치회비 사용 문제 ▲총여생회 산하 성평등위원회의 개편과 같은 이슈는 이번 대자보에서 언급되지 않았다. 더불어 총여가 해당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계획을 갖고있는지도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총여는 앞으로 두 번의 대자보를 더 게재해 입장을 밝힐 계획이라고 전했다. 두 번째 대자보에는 자치회비구조에 대한 문제와 성평등위원회가 아닌 단독적으로 총여가 있어야 하는 이유를, 세 번째 글에서는 총여가 그동안 해온 역할과 성과 그리고 앞으로의 역할과 어떻게 활동해 나갈지에 대한 입장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성희롱이나 성차별을 느낀 여학생들은 총여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변화시키고 싶어한다"며 "남자와 여자의 대결구도가 아닌 유학생들의 어려움을 돋는 총여생회와 같이 어려움을 개선하고 싶은 여학생들의 단체로 총여를 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관장 부총장 통해 폭언 사과 노조측 "공식사과는 아니지만 수용하기로"

노조 - 박물관측 갈등 수습국면

이승연 기자 leesy0317@khu.ac.kr

노동조합(노조)과 혜정박물관 간 성명서전이 지난 20일 혜정박물관 김혜정 관장이 이승한 부총장을 통해 사과하면서 진정되는 모양새다. 노조도 사과를 수용했고, 폭언의 피해자이자 원인이기도 했던 감사행정원 역시 혜정박물관과 감사절차에 대한 합의를 도출했다.

지난달 노조의 성명서로 외부에 알려졌던 폭언논란은 3차례 걸친 노조-박물관 간 성명서전으로 이어졌다. (대학주보 제1588호(2015.04.12.) 3면) 성명서전은 지난 12일 김혜정 관장의 '존경하는 동료 교수님들'이라는 메일에 이어 지난 17일 노조가 2차 성명서를 게재할 때까지 합의가 요원해보였다. 김 관장은 메일을 통해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었다. 감사원이 '개인이 수집한 사료 목록'을 부당하게 가져간 것과 자료반환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사과와 노조의 부당한 징계요구를 문제 삼았다. 김 관장은 끝으로 "이번 사안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고 나아가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대학은 김 관장의 부적절한 언행을 면밀히 조사하고, 교원인사위원회 징계여부 결정사항을 노조 측에 정식으로 통보할 것'과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인권보고 및 구성원 윤리강화 관련 제도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세부지침을 마련해 엄격히 준용할 것'을

하나로 정리했다.

하지만 감사행정원과 혜정박물관이 감사절차에 합의하고, 지난달 20일 감사의 일환으로 면담을 진행하면서 고인 문제를 풀었다. 감사행정원 조성인 계장은 "김 관장의 입장이 전과 달라졌다고 보긴 힘들지만, 합의를 통해 감사에 응해줬다"며 "앞으로도 감사를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됐던 감사절차에 대한 문제가 해결된 만큼, 정기감사를 그대로 이행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27일 김 관장은 폭언에 대해서도 사과했다. 김 관장의 일본 출장으로 인해 해당 직원에게 이승한 부총장을 통해 사과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도 직원에 대한 김 관장의 사과를 수용했다. 노조 송혜경 위원장은 "공식적인 사과 형태는 아니었지만 당사자에게 사과한 만큼 인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노조는 대학본부에 요청한 김 관장의 교원인사위원회 징계여부와 관련해 피해당사자가 신고 하지 않는 이상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입장을 전달받은 상태다. 한편 노조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윤리강화를 위한 '존중 문화합의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합의문에는 양 캠퍼스 학부, 대학원 총학과 직원, 교수의회도 참여할 계획이다. 송 위원장은 "이번 혜정박물관 사태에서 성명서 게재의 목표는 '존중 문화'를 만드는 것이었다"며 "이번 사건이 좋게 마무리돼 서로 존중하는 문화로 가는 좋은 시작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사건 흐름

- 5월 노조 윤리강화를 위한 '존중 문화합의문'을 발표 계획
- ▲ 4월 27일 김 관장, 이승한 부총장을 통해 폭언 사과 전달
- ▲ 4월 20일 감사원-혜정박물관 감사 면담
- ▲ 4월 17일 노동조합 2차 성명서 게재
- ▲ 4월 12일 혜정박물관 김혜정 관장 '존경하는 교수님들께' 메일 발송
- ▲ 4월 1일 김 관장 명의에 입장문 발표
- ▲ 3월 27일 노동조합 1차 성명서 게재
- ▲ 3월 24일 김 관장 감사행정원 방문, 담당직원에게 폭언

2015년도 국제캠퍼스 대학직장예비군 기본훈련 안내

2015년도 국제캠퍼스 예비군 기본훈련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대상자는 훈련에 적극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요

가. 예비군 복무(전투복, 전투모, 전투화, 요대, 고무링)를 규정대로 착용할 것(미 착용시 입소 불가)

나. 훈련장소: 운동장 예비군 훈련장(용인시 처인구 운동동 육동로 87 / 551사단 3대대)

다. 훈련일자: 대학(학과별) 훈련 일정

훈련일자	훈련 대상 학과	시간
5월 26일(목)	● 외국어대학 ● 생명과학대학 ● 전자정보대학: 컴퓨터공학	
6월 19일(월)	● 체육대학 ● 예술-디자인대학	
6월 2일(화)	● 전자정보대학: 전자-전기공학, 생체의공학	09:00
6월 3일(수)	● 국제대학 ● 국제 경영대학 ● 동서시의과학과	~ 18:00
6월 4일(목)	● 공과대학: 학과공학과, 정보전자신소재공학, 산업경영공학	
6월 5일(금)	● 공과대학: 건축공학, 건축학과, 사회기반시스템공학, 환경학및환경공학	
6월 8일(월)	● 토목건축대학 ● 음악대학	
6월 9일(화)	● 공과대학: 기계공학과, 원자력공학	
6월 10일(수)	● 일반 / 문문 / 특수 대학원 ● 교직원	

* 개인별 대상자 명부는 훈련 2주 전에 대학(원)별 학과 행정실 및 학교 홈페이지 일반 공지사항에서 확인

2. 준비물

가. 예비군 복장(전투복, 전투모, 전투화, 요대, 고무링)을 규정대로 착용할 것(미 착용시 입소 불가)

※ 특히 전투화 미 착용시 입소 절대 불가함

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학생증, 여권) 필히 지참할 것

3. 교통 안내

가. 예비군 차량(임대 버스)을 지하철 2호선 강남역 및 국제캠퍼스 정문 앞 2곳에서 운용

1) 강남역: 강남역 7번 출구 200m전방 우리은행 365코너 앞에서 07:40 출발

2) 국제캠퍼스: 정문에서 07:50 출발

나. 개인별로 입소할 예비군 학교 홈페이지 훈련안내문에 공지된 훈련장 오도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4. 유의 사항

가. 대상자 명단에 누락된 예비군은 임의로 훈련에 참가할 수 없으므로 예비군 연대본부에 확인 후 훈련에 참가하여야 훈련이 유효함

나. 개인 사물보관함에는 분실 우려가 있으니 귀중품(시계, 금전, 반지 등)은 보관하지 말 것(분실시 개인 책임을 명심할 것)

다. 대학(학과별) 훈련일정은 훈련부대의 수용 인원을 고려한 것으로 훈련일자 변경은 절대 불가함

라. '5년 훈련 시 입소통제 지침(09:00~09:30: 입소불가 / 신고불가, 09:30~10:00: 입소불가 / 무단출발)

마.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는 훈련부대(대학본부)에 게시판, 대학주보, 대학방송, 학과 홈페이지로 공시된 훈련대상 명부로 대신하며, 필요시에만 개인 별증함

바. 기타 훈련에 의문사항이 있을 시 연대본부(전화 031-201-3265~9)에 문의하기 바랍니다

『책읽기의 즐거움』 제6회 명사특강 개최

중앙도서관에서는 독서문화 창조를 위한 연중기획으로 「책읽기의 즐거움」 제6회 명사특강을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일시 : 2015년 5월 13일(수) 오후 1시 30분 ~ 3시
- 장소 : 중앙도서관 피스홀
- 초청강사 : 서덕영 교수(전자정보대학 전자·전파공학과)
- 강연제목 : 직업의 미래 '미디어는 메시지이다'

〈약력〉

● 학력

- 서울대학교 핵공학 학사
- 미국 조지아텍 전기 및 컴퓨터공학 박사

● 주요경력

- 생산기술연구원 HDTV 개발단
- (現)경희대학교 전자정보대학 교수

※ 수업현장 조작 가능

※ 문의 : 중앙도서관 열람과 ☎ 031-201-3217

국제캠퍼스 중앙도서관

경희대학교 개교 66주년 기념

제2회 경희사랑 한마음 걷기대회

2015. 5. 16 (토) 05:30 ~ 19:00

서울C 본관 앞 분수대 → 국제C 사적의 광장

참석대상 경희대학교 전 구성원 (교수, 직원, 학생)

문의전화 체육대학행정실 : 031)201-2701~2

코스

05:30 서울C 본관 앞 분수대 출발

11:30 한진고등학교 부근 체육관 앞 출발(한진고등학교 1번 출구)

14:30 한진고등학교 부근 체육관 앞 출발(한진고등학교 정문 6번 출구)

국제C 사적의 광장 20km

3회 코스

11:30 한진고등학교 부근 체육관 앞 출발(한진고등학교 1번 출구)

14:30 한진고등학교 부근 체육관 앞 출발(한진고등학교 정문 6번 출구)

국제C 사적의 광장 30km

4회 코스

11:30 한진고등학교 부근 체육관 앞 출발(한진고등학교 1번 출구)

14:30 한진고등학교 부근 체육관 앞 출발(한진고등학교 정문 6번 출구)

국제C 사적의 광장 20km

5회 코스

11:30 한진고등학교 부근 체육관 앞 출발(한진고등학교 1번 출구)

14:30 한진고등학교 부근 체육관 앞 출발(한진고등학교 정문 6번 출구)

국제C 사적의 광장 20km

6회 코스

11:30 한진고등학교 부근 체육관 앞 출발(한진고등학교 1번 출구)</p

기획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 소폭 증가…사립대학 평균엔 부족

대학알리미② 전임교원 강의 비율

이승연 기자 leesy0317@khu.ac.kr

4월 30일 공개된 대학알리미 공시자료에서 2015년 1학기 우리학교의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이 48.9%로 사립대학 전체 평균 63.1%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개년 자료 분석 결과 우리학교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지만, 증가 정도가 미비해 사립대학 전체 평균엔 미치지 못했다.

최초 공시자료인 우리학교 2012년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은 45.8%다. 같은 해 사립대학평균은 55.1%를 기록했다. 연세대가 58.8%, 성균관대가 57.5%, 한양대가 55.6%를 기록한 것을 제외하고 고려대는 50.3%, 한국외대는 48.8%, 중앙대는 44.6%를 기록하는 등 주요 사립대학 대부분이 평균치에 미치지 못했지만, 그 중에서도 하위권에 속했다.

다음해인 2013년에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을 사립대학 전체평균은 58.1%를 기록했다. 우리학교는 이 해에 46.4%로 소폭 상승했지만 역시 평균치를 크게 밟았다. 여기에는 타 대학의 비율이 의미있게 상승한 것이 한 몫 했다. 타 대의 경우 연세대가 58.3%, 성균관대가 59.8%, 한양대가 57.4%를 기록하는 등 우리학교와 큰 격차를 보였다.

전임교원 강의비율 40%대 연세대 56.6%, 한양대 56.5% 과 대조

2014년 동 지표의 사립대학 전체평균은 61.5%를 기록했다. 우리학교도 48.3%로 이전 해 대비 2%p 가량 상승한 수치를 보였지만, 연세대가 56.6%, 한양대가 56.5%, 성균관대가 59.33%를 기록하는 등 타대와의 간극이 좀처럼 좁혀지지 못해 하위권을 벗어날 만큼의 성과를 보이진 못했다.

우리학교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이 이처럼 낮은 추세를 보이는 가장 큰 이유는 지난 2008년부터 단계적으로 전임교원 강의시수를 축소해왔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학교의 '전임교원 연간 책임시수'는 12시간으로 연세, 고려, 서강대와 같지만 성균관, 한양, 중앙대의 15시간에 비해 낮다.

타 대학에 비해 많은 강의 수로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이 낮게 나오는 이유 중 하나다. 이는 많은 전공 강의 수와 더불어 후마니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

학교	책임 시수	2013		2014		2015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경희대	12	46.2%	46.2%	47.5%	49.1%	48.9%
고려대	12	51.4%	51.8%	50.9%	52.5%	51%
연세대	12	58.5%	58.1%	57.8%	55.4%	54.4%
서강대	12	54.4%	56%	60%	60.9%	59.4%
한양대	15	58.8%	56%	56%	57%	58.2%
성균관대	15	59.8%	59.8%	59.6%	59.1%	59.2%
중앙대	15	52%	52.5%	53%	58.3%	59.7%

타스칼리지라는 특수 상황이 결합된 결과다.

1년째 제자리 전임교원 시수 논의 강의-연구 분리도 요원

이 같은 현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현재 우리학교는 전체 강의수를 줄여나가는 중에 있다. 지난 2012년 8,338개였던 전체 강의 수는 2013년에 8,243개, 2014년 7,696개로 줄어들었다.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을 둘러싼 이 같은 지적들에 대해, 대학본부는 단순 수치만으로 교육의 질을 평가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미래정책원 우지연 팀장은 "단순 수치만으로 평가하기엔 복합적인 원인이 있다"며 "우리학교의 경우 타대보다 강의 수가 많아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 증가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임교원의 연간 책임시수가 낮은 현실은 현재 진행 중인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도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은 대학구조개혁 평가지표 중 '학사관리 항목 수업관리 지표'에 속하기 때문이다. 대학본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파악하고 전임교원 담당강의 비율을 높이기 위해 방안 마련에 있지만 가시적인 성과는 없는 상태다.

지난해 대학본부는 '전임교수 강의비율 향상 및 적정 강의규모를 통한 교육의 질 제고'를 주제로 TF를 연 바 있다. 당시 대학본부는 강의전담 교수와 강의와 연구를 병행하는 교수를 나눠 책임시수를 분배하는 개선방향(안)을 제시했다. 강의전담 교수는 15시간의 책임 시수를 분배받는 반면 강의와 연구를 병행하는 교수는 12시간의 책임시수가 배당된다는 암이었다. 이와 더불어 책임시수 미달성 시 급여환수, 미달 시수 차기 학년도로 이월, 승진과 재임용 및 업적평가 시 감점 부여, 연구년 부여 시 시수 총족기준 추가 등의 펠트리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가하기도 했다.

하지만 TF가 구성된지 1년여가 흐른 지금에도 이 '개선방향(안)'은 여전히 '안건(案件)'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이 낮다는 것은 비전임교원이 부담하는 강의담당 비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시간강사 강의담당 비율 하락세

초빙교원 10배 증가는 '편법'?

2012년 54.2%를 기록한 우리학교 비전임교원 담당 강의 비율은 2013년에 53.6%, 2014년에 51.8%, 2015년 1학기에 51.1%로 꾸준한 하락세를 보였다.

그러나 당해 연도 사립대학 전체 평균 비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이 각각 43.7%, 41%, 37.7%이고, 대부분의 주요 사립대학이 50% 이하의 수치를 본다면 여전히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특히 시간강사의 강의 담당 비율은 2013학년도 1학기 34.8%에서 2015학년도 1학기 32.0%로 낮아진 반면에 같은 기간 겸임교원은 5.7%에서 6.1%로, 초빙교원은 0.8%에서 8.7%로 급증했다. 결국 대학평가 등을 고려해 '비정년트랙 전임교수'로 대표되는 편법논란에서 우리학교도 자유롭지 않은 상황이다.

2015학년도 1학기 사회봉사 교과목 이수 및 실적등록 안내

1. 취득 가능 학점
가. 성적부여 방식: P/F (2014학년도 부터 P/F 모두 성적표에 기재)
나. 최대 취득 가능학점: 학기당 1학점, 총 2학점(단, 2007학년도 입학생까지는 최대 3학점)

2. 사회봉사 학점취득 변경내용 (2013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

3. 사회봉사 학점인정신청 및 실적등록신청

4. 기타 세부사항

5. 기타 세부사항

6. 기타 세부사항

7. 기타 세부사항

8. 기타 세부사항

9. 기타 세부사항

10. 기타 세부사항

11. 기타 세부사항

12. 기타 세부사항

13. 기타 세부사항

14. 기타 세부사항

15. 기타 세부사항

16. 기타 세부사항

17. 기타 세부사항

18. 기타 세부사항

19. 기타 세부사항

20. 기타 세부사항

21. 기타 세부사항

22. 기타 세부사항

23. 기타 세부사항

24. 기타 세부사항

25. 기타 세부사항

26. 기타 세부사항

27. 기타 세부사항

28. 기타 세부사항

29. 기타 세부사항

30. 기타 세부사항

31. 기타 세부사항

32. 기타 세부사항

33. 기타 세부사항

34. 기타 세부사항

35. 기타 세부사항

36. 기타 세부사항

37. 기타 세부사항

38. 기타 세부사항

39. 기타 세부사항

40. 기타 세부사항

41. 기타 세부사항

42. 기타 세부사항

43. 기타 세부사항

44. 기타 세부사항

45. 기타 세부사항

46. 기타 세부사항

47. 기타 세부사항

48. 기타 세부사항

49. 기타 세부사항

50. 기타 세부사항

51. 기타 세부사항

52. 기타 세부사항

53. 기타 세부사항

54. 기타 세부사항

55. 기타 세부사항

56. 기타 세부사항

57. 기타 세부사항

58. 기타 세부사항

59. 기타 세부사항

60. 기타 세부사항

61. 기타 세부사항

62. 기타 세부사항

63. 기타 세부사항

64. 기타 세부사항

65. 기타 세부사항

66. 기타 세부사항

67. 기타 세부사항

68. 기타 세부사항

69. 기타 세부사항

70. 기타 세부사항

71. 기타 세부사항

72. 기타 세부사항

73. 기타 세부사항

74. 기타 세부사항

75. 기타 세부사항

76. 기타 세부사항

77. 기타 세부사항

78. 기타 세부사항

79. 기타 세부사항

80. 기타 세부사항

81. 기타 세부사항

82. 기타 세부사항

83. 기타 세부사항

84. 기타 세부사항

85. 기타 세부사항

86. 기타 세부사항

87. 기타 세부사항

88. 기타 세부사항

89. 기타 세부사항

90. 기타 세부사항

농·임학, 약학, 전기·전자공학, 지리학, 화학공학 2년 연속 200위 내 기록…10개 분야 200위 진입

QS세계대학 학문분야 평가결과

황경선 기자 sunny96@knu.ac.kr

‘2015 QS세계대학 학문분야 평가’ 결과 우리학교는 36개 학문분야 중 10개가 상위 200위에 들었다. QS세계대학 학문분야 평가는 200위 밖의 순위는 공개하지 않는다. 지난달 29일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순위 안에 든 분야는 경영학, 농·임학, 법학, 약학, 전기·전자공학, 정치학 및 국제학, 지리학, 철학, 현대언어, 화학공학 등이다.

특히 농·임학, 약학, 전기·전자공학, 지리학, 화학공학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순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전자정보대학 이수열 학장은 “교수님들 모두 열심히 연구해서 이룩한 성과”라며 “더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외부 홍보활동을 활발하게 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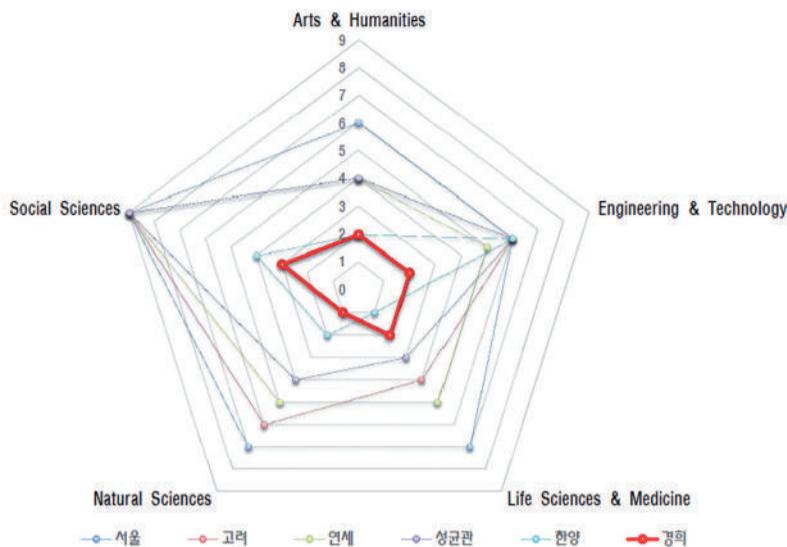
지난 2004년부터 시행된 QS세계대학평가는 전세계 3,500개 대학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학계평판도, 졸업생 평판도, 교수당 논문 피인용수, H인덱스(논문 발표수와 인용횟수를 이용해 연구자의 연구성과를 측정하는 지표) 등의 지표를 이용해 순위를 매긴다.

QS세계대학평가 학문평가는 평판도와 논문 인용수 등으로 이뤄진다

이 때 학계평가와 졸업생 평판도, 즉 ‘평판도’가 평가의 5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한다. 특히 인문·사회계열의 경우는 평판도가 거의 100%의 비중을 차지한다. 때문에 지난해에는 상위 200위권에 포함됐었지만 올해는 순위에서 이탈한 커뮤니케이션학, 토목공학, 재무회계학의 경우도 이 ‘평판도’에 변화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미래정책원 학술진흥팀 김성환 계장은 “작년에 평판도 설문에 참여했던 교수들이 올해 설문에는 참여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평가 순위 하락의 원인 중 하나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국내대학 중에서는 서울대가 35개 학문분야가 순위 안에 들었고, 뒤를 이어 고려대(29), 연세대(28), 성균관대(26), 한양대(15), KAIST(13) 그리고 우리학교 순이었다. 다른 대학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대학들이 전반적으로 강점을 보였던 공학과 자연과학에서 우리학교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속제로 남았다.

● 주요대학 영역별 Top 200 학문분야 비교



20명 이하 소형강좌 56개 축소

‘대학알리미’ 정보공시 분석

이진우 기자 urusa93@knu.ac.kr

대학알리미에는 학생들의 교육여건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2015학년도 ‘등록금 현황’, ‘학생규모별 강좌수’ 정보도 공시됐다.

2015학년도 평균등록금은 766만 4,300 원으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등록금은 동결됐다. 계열별로 살펴보면 예·체능과 공학계열은 전년도 등록금과 동일했고, 인문사회계열은 2만 7,900원 증가하고 자연과 학계열은 2만 9,600원 줄었다. 이는 입학정

원변경에 따른 차이로 해석된다.

다면 의학계열 등록금의 경우 각각 51만 4,200원이 증가했다. 의과대학 의예과로 전환하면서 등록금을 ‘신규’ 책정했기 때문에 이런 증액은 등록금 평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학생규모별 강좌수 항목의 경우 2015학년도 1학기 총 강좌수가 지난해 1학기 대비 111개 줄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100명이 넘는 ‘대형강의’도 44개나 줄었다. 하지만 20명 이하의 소형강좌는 56개 줄었고, 50명에서 100명이 수강하는 규모의 강좌는 76개 증가해 실질적인 강의환경 개선이 이뤄졌다고 평가하긴 어렵다.

▶1면에서 이어짐

관련 논란으로 교육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들추지 않는 방향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유팀장은 “국가기관의 재정지원 사업에서는 포함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현재 성적평가제도 관련 논의는 ‘성적제도 개편을 위한 특별위원회(성적제도특위)’에서 이뤄지고 있다. 성적제도특위에서 지난달 30일까지 결과를 도출할 계획이었지만, 대학본부와 총학생회(총학) 사이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다음 4차

회의는 5월 중순으로 예정돼 있다.

국제캠퍼스 총학 이서영(식품생명공학 2012) 부회장은 “학생들에게 현실적인 지표를 제시하고, 양 캠퍼스 학생 의견을 고루 수렴할 수 있는 설문을 학사지원과와 함께 진행할 예정”이라며 “의견 공유를 통해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강필준(자율전공학 2012) 부회장은 “성적제도와 관련한 학생 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 분석이 마무리됐다”며 “그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빅이슈 사는 꼬깃꼬깃 쌈짓돈 학생들 보면 마음 징하죠”

빅이슈 판매원 ‘신’ 씨 아저씨

최병현 기자 chbh1027@knu.ac.kr

“힘든 건 없죠. 오히려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들께 감사해요.”

신병현 ‘빅판(빅이슈 판매원)’은 지난 29일, 비가 내리는 낮은 날씨에도 서울캠퍼스 정문 앞에서 《빅이슈(Bigissue)》를 팔고 있었다. 날씨 탓에 지나가는 사람들은 발길을 재촉하며 신 씨를 외면했지만, 그는 미소를 짓고 있었다. “날씨에 굴하지 않는 꾸준함”을 자신의 판매전략이라고 밝혔다. 《빅이슈》는 지난 2010년 창간한 잡지로, 잡지판매 활동을 통해 노숙인들에게 자활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 씨는 이전 ‘빅판’의 자리를 이어받아 7개월째 정문 앞을 지키고 있다. 매주 수, 목, 금요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판매 시간이다. 지난해 서울역 노숙인 쉼터에서 빅이슈를 알면서 바로 일을 시작했다.

이전의 삶에 대해서는 “저도 잘 기억을 못해요”라며 답을 피했다. “하루 평균 10권 안팎정도 판매하고, 많이 팔 때는 21권까지 팔아봤다”며 오늘을 자랑하는 그에게 어제의 일은 더묻지 않기로 했다.

빅판 활동을 하면서 어려운 점이 없느냐는 물음에도 그는 “힘든 건 없죠. 오히려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들께 감사하다”고 답

했다. 오히려 신 씨는 “잡지를 구매해주시는 분들의 얼굴을 잘 기억하지 못해 많이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후의 질문에도 그는 수고스러워보다는 감사함을 강조해 거듭 말했다.

특히 “꾸준히 찾아와 커피와 빵을 건네는 몇몇 학생들이 기억에 남는다”며 그는 학생들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전했다. “어떤 학생들의 지갑을 보면 꼬깃꼬깃하게 넣어져 있는 쌈짓돈이 보여요. 그런 돈으로 빅이슈를 구매하면 마음이 징하죠. 고마움을 많이 느껴요.”

이어서 신 씨는 “방학에도 학교에 나와서 공부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다”, “저도 어려운 상황에서도 열심히 살려고 하는 것처럼, 다들 희망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힘내서 열심히 살면 좋겠다고 항상 전해주고 싶었다”와 같은 응원의 말까지 전했다.

끝으로 신 씨는 빅이슈를 소개하며, “저뿐만 아니라 다른 빅이슈 판매원 동료들에게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며 “더 많이 관심 주신다면, 우리도 더 힘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빅이슈의 판매처와 판매시간은 빅이슈 코리아 홈페이지 (<http://www.bigissue.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빅판의 판매를 돋는 ‘빅돔(빅이슈 판매 도우미)’ 봉사활동과 정기구독 신청 및 허리스 인식 개선사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도 제공받을 수 있다.

2015학년도 후기 교육대학원 신입생 모집

1. 원서접수 및 서류제출기간 : 2015. 4. 29(수) ~ 5. 8(금) 17:00

2. 원서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http://www.uway.com>)

3. 모집전공

구분	재교육과정	양성과정
서울캠퍼스	교육공학, 교육심리, 교육행정, 물리치료, 미술교육, 보건교育, 외국어로서의한국어교육	성당심리, 영양교육, 유아교육, 국어교육, 물리교육, 미술교육, 상업정보교育, 생물교육, 수학교육, 역사교육, 영어교육, 음악교육, 일반사회교육, 화학교육
국제캠퍼스	학교경영, 초등영어교육, 평생교육	수학교육, 영어교육, 일어교육, 중국어교육, 디자인·도예교육, 체육교육

4. 지원자격 : 4년제 대학졸업(예전자) 및 등등등 자격이 있는자

- 단, 양성과정의 경우 학부전공과 지원하는 본 대학원 전공이 동일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지원 가능(관련학과 34학점이상 이수자 및 기본이수과목 3과목(분야) 이상 이수자, 국어교육 2분야 이상)

- 그 외 전공별 세부 지원자격을 모집요강을 참고

5. 전형요소 : 서류, 필기, 면접 등

6. 특전

- 경희대학교 졸업생의 경우 동문장학금 지원
- 양성과정의 경우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 취득

7. 문의처

- 서울캠퍼스 : 02-961-0135~2 - 국제캠퍼스 : 031-201-2103~2

- 홈페이지 <http://edu.knu.ac.kr>

2015학년도 후기 법무대학원 신입생 모집

● 모집학과 및 전공

구 분	학 과	전 공
석사과정	글로벌기업법학과 공공법학과 중국법학과 지역자본법학과 조세법학과	글로벌기업법전공, 미국법전공 입법전공, 공법전공 중국법전공 지적재산법전공, 인터넷법전공 조세법전공

● 장학제도

구 분	장학금	지급기준
경희동문장학	수업료 13%	본교 동문 및 호텔경영전공대학 동문
공무원장학	20%	공무원, 군인, 정부투자기관 재직자
외국인장학	30%	정원 외로 입학한 외국인
평생교육장학	20%	경희사이버대, 서울디지털대, 열린사이버대 졸업(예정)자
조교장학	50~100%	50~100% 학점조교 또는 연구조교에 지원하여 임용된 학생

* 국가고시장학, 성적장학, 모범장학, 총장장학 등 기타 장학제도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 강의 – 주중(야간) 및 주말 개설

- 특별전형 일정
 - 원서접수 : 2015. 4. 27(월) ~ 5. 8(금)
 - 전형 일 : 5. 9(토) 10:30
 - 접수방법 : 우편접수, 방문접수, E-mail접수(khsb2670@knu.ac.kr)

● 전형료 – 특별전형 지원자는 전형료 면제

- 제출서류
 - 입학원서(소정양식) 1부 – 본 대학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대학교(학부) 졸업(예정)증명서 1부

※ 문의처

■ 전화 : 02 - 961 - 0905 ■ 홈페이지 : interlaw.knu.ac.kr

경희대학교 법무대학원

2015학년도 후기 언론정보대학원 신입생 모집

● 모집학과 및 인원

구 분	학과	전공	모집인원
언론학석사 과정 (신입/편입)	저널리즘	신문·잡지 방송 광고 홍보	00명
	전자커뮤니케이션	스피치·토론 전자커뮤니케이션	
	문화콘텐츠	출판·저작권 대중예술 디지털영상	

● 전형일정

구 분	일정	장소
원서교부 및 접수	2015. 5. 26(화)~6. 3(수)	방문접수/우

보도



2017년 8월까지 100억 원 투입 구성원 맞춤형 시스템 개발

Info21 최종보고회

이진우 기자 urusa93@khu.ac.kr

〈차세대정보시스템구축을 위한 BPR/ISP사업(Info21사업) 최종보고회〉가 지난 14일과 15일 서울캠퍼스와 국제캠퍼스에서 각각 열렸다. 보고회에서는 Info21에 대한 경과보고와 추진계획보고가 주를 이뤘다.

지난해 4월부터 시작된 Info21사업은 향후 우리학교의 종합정보시스템을 비롯한 행정시스템을 재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삼정KPMG'를 사업자로 선정한 이후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모델을 설계했고, 지난달 26일 조인원 총장에게 관련 내용이 최종 보고됐다. 지난 14일 서울캠퍼스에서 열린 보고회에서 Info21 사업단 흥춘선 단장은 Info21 사업의 목적이 "교내 정보시스템의 고도화를 통해 교육 및 연구에 수월성을 더하겠다는데 있다"고 말했다.

보고회 자료에 따르면 Info21 사업의 기대효과로 ▲학생맞춤형 진로지원 역량 강화 ▲다양한 학생복지 및 취업률 질적 향상 ▲학업성취도 향상 및 우수 입학 자원 확보 ▲대외과제 연구환경의 개선 ▲재정 투명성 및 예산 효율성 강화 ▲시설·공간·자산 비효율성 제거 ▲시스템 사용의 편의성 강화 ▲정보의 적시성 및 정확성 제고 ▲투입자원을 고려한 효율적 인프라 환경 구축 등

을 꼽고 있다.

이를 위해 업무프로세스 개선은 학사행정, 일반행정, 연구행정 3가지로 나누어 개선안을 수립한 상태다. 총 40개의 개선과제, 163개의 설계항목으로 구성돼있다. 특히 개편을 통해 정보시스템에 교직원, 학생 등 각각의 구성원들이 접속할 경우, 개개인에 필요한 정보만을 선별해 우선 제공하는 시스템이 도입될 전망이다. 교원의 경우 과제 진행 및 연구비 현황, 학사관련 일정과 같은 정보가, 학생의 경우 학사공지, 취업정보, 학적 및 성적 관리와 같은 내용이 정보시스템 첫 페이지에 제공되도록 계획이다.

계획은 만들어졌지만, 실제 시스템 구축부터 도입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Info21사업단은 오는 8월까지 시스템구축 사업자를 선정한 후 15개월 동안 분석·설계·개발을 마칠 계획이다. 이후 3개월 간의 테스트 기간을 거쳐 2017년 3월부터 시스템을 공개하고, 문제점 보고를 받아 개선해 최종적으로 2017년 8월 전체사업이 마무리된다. 전체 예산은 약 100억 원이 투입된다.

보고회를 마무리하는 질의·응답에서 채석현 Info21 사업 총괄PM은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평소 담당하지 않았던 업무도 하게 될 수 있다"면서 "학교 발전을 위한 대승적인 차원에서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핵심교양 이수면제 신청안내

2004~2007학년도 핵심교양 이수면제 규정에 의거 (구)핵심교양과목의 이수면제를 받고자 하는 학생은 아래와 같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 2004~2007학번 재학생(현 학기 휴학생 신청 불가) 중, 금학기 현재 면제 받고자 하는 과목을 수강하고 있지 않으며 이수하지 않은 자

2. 이수면제 대상과목(학점부여 없음)

가. "대학영어"
나. "사고와 표현", "보고서작성과 발표", "생명과학논문작성법"

3. 면제기준 및 자격 (※기타 자세한 이수면제 기준은 첨부 '핵심교양 이수면제 기준표' 참조)

가. 대학영어 이수 면제기준 및 자격
1) 개인영어능력자로 개별별 TOEFL, TOEIC, TEPS, G-TELP 일정점수 이상자
2) 국제학 출신 TOEFL, TOEIC, TEPS 전형 입학자
3) 영어권 국적 외국인 특례입학자

4) Intensive Program(DEEP, LEAP, REACH)이수자
5) 국제교류센터주관 영어권 학점교류교환학생 및 어학연수생

나. 사고와 표현 영어 이수 면제기준 및 자격
1) 1학기 : 독후감 평가 80점 이상을 득한 후 구술시험 통과자에 한하여 2단계 시험 자격 부여
2단계 : 글쓰기 시험 90점 이상

4. 신청기간 : 2015. 06. 01(월) ~ 06. 12(금) 17:00까지

5. 신청장소 : 후마니타스칼리지 행정실(멀티미디어교양관 507호)

6. 제출서류 : 1. 신청서 1부 (첨부파일 다운로드)
2. 증빙서류 원본

7. 신청자 유의사항

가. 2015-1학기 현재 상기과목을 수강 및 이수한자는 신청할 수 없음.

나. 본 제도는 일정능력보유자에게 과목이수를 면제하는 제도로서 학점은 부여되지 아니하므로 출업에 필요한 학점은 별도로 이수해야 함.

다. 신청자격이 있어도 본 이수면제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과목이수를 면제받을 수 없음.

라. 공학인증(ABEEK) 대상자는 공인영어능력시험으로 영어 학점 인정 불가.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후마니타스칼리지 행정실로 문의 바랍니다. (☎. 031-201-3401~5)

국제캠퍼스 후마니타스칼리지

두개 강좌 선정, 연간 1억원 지원받아

K-MOOC 시범사업선정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보도팀 기자 khunews@khu.ac.kr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Korean Massivie Open On-line Course) 시범운영 대학 10개교 중 한 곳으로 우리학교가 선정됐다. 이번 사업선정으로 우리학교가 자체적으로 추진해왔던 '경희MOOC' 사업도 탄력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온라인 공개강좌는 미국, 유럽 등의 유명 대학에서 시행 중인 제도로, 온라인을 통해 누구나 해당 대학의 공개강좌를 듣고 이수증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일부 대학은 학점도 인정해주고 있다.

교육부는 오는 9월부터 일반인에게 공개할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시범운영 대학 10곳의 27개 강좌를 지난 16일 발표했다. 총 48개 대학이 106개 강좌를 신청했고, 대학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기반으로 기본 분야와 콘텐츠 개발계획, 강좌 운영계

획 3개 영역을 평가해 최종 결정했다.

우리학교의 경우 유정완 교수의 〈우리가 사는 세계 : 호모에티쿠스〉와 김현 교수의 〈글로벌 시민교육, 지구공동사회의 시민으로 살기〉 선정됐다. 교육부 사업계획안에 따르면 각 대학에는 매년 1억 원 씩 3년간 지원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시범대학 선정이 우리학교가 자체적으로 추진해왔던 경희MOOC 사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학교는 기존의 온라인 공개강좌(KOCW, Korea Open CourseWare)를 넘어 보다 체계적인 '개방형 고등교육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경희MOOC 사업을 추

진해온 바 있다.〈관련기사 : '경희 MOOC 2.0' 5월 오픈, 온라인 설명회와 포럼도 개최(2015.01.29.)〉 우리학교는 K-MOOC 사업계획서를 통해 경희MOOC, KOCW 등의 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점을 강점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교수학습지원센터 지은림 소장은 "이번 정부의 K-MOOC 시범대학 선정이 우리학교가 글로벌 대학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가간 경계가 허물어진 글로벌 사회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융합되고, 배움의 시간이 평생으로 확장되는 미래를 위한 새로운 대학의 모델을 창출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MOOC 시범운영 선정 대학 현황〉

선정 강좌수	4개	3개	2개
대학	이화여대 한양대	연세대	경희대, 부산대, 서울대, 성균관대, 포항공대, KAIST

“아프리카 발전 가로막는 것은 다국적기업”

세계사회포럼 교내특강

이수형 기자 shyung@khu.ac.kr

【서울】 세계사회포럼을 위해 방한한 세네갈의 진보경제학자인 덤바 무싸 덤벨레(Demba Moussa Dembele)가 '존엄과 자립 : 아프리카인은 자원외교를 어떻게 보는가'를 주제로 지난 29일 네오르네상스관 104호에서 강연했다.

시작부터 그는 "일본의 아베 총리 등 외국의 지도자들이 아프리카를 세계의 희망이라고 언급한 것은 그들이 아프리카의 천연자원을 통제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라며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이어서 "선진국들이 아프리카를 공생관계가 아닌 수의창출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주류 미디어들은 아프리카에 해외직접투자가 크게 활성화돼있고 이를 원동력삼아 아프리카가 경제적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 말한다. 하지만 이 말은 사실과 다르며 아프리카의 취취를 정당화하기 위한 수사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특히 덤바 씨의 주장에 따르면, 현재 아시아로 향하는 해외직접투자 규모가 아프리카의 해외직접투자액의 8배에 달하며, 전

세계의 해외직접투자 중 고작 4%만이 아프리카로 향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히려 아프리카에서 외국으로 유출되는 부가 매년 600억 달러에 달한다"며 "겉으로만 원조하는 시늉을 하는 선진국들을 아프리카가 먹여 살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현실이 아프리카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선입견 틀에 잘못 알려졌다고 지적하기도 했

다. 그는 "정부의 부패가 아프리카의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유출되는 부의 65%는 세금조차 제대로 내지 않는 다국적 기업으로 인한 것이고, 정부부패로 인한 부의 유출은 고작 5% 남짓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역할을 확대하고 천연자원에 대한 주권을 되찾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강연을 마무리했다.

2015학년도 1학기 수시 강의평가 시행안내

2015학년도 1학기 수시 강의평가 시행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수업의 질을 높이고 학업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학생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수시평가는 평가문형을 별도로 두지 않으며, 수업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 또는 요청사항을 개방형으로 기술할 수 있습니다.

* 수시 강의평가는 평가자의 인적사항이 교강사 조회화면에 표시되지 않으며, 교강사에 의해 수업진행 참고용으로만 활용됩니다.

1. 수시 강의평가 진행기간 : 2015. 4. 6(월) 10:00 ~ 5. 29(금) 17:00 (8주)

2. 진행절차 : 종합정보시스템 → 수업/성적/상당 → 강의평가 → 수강과목확인 후 강의평가(수시) 선택

3. 입력화면 설명

가. 1. '강의내역' : 선택한 강의내역을 확인
나. 2. '평가문형' : 수업운영에 대한 의견 또는 요청사항을 개방형으로 기술하고 '저장'을 클릭
다. 3. '평가내역확인' : 본인이 일자별로 올린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교강사 확인여부 파악 가능



4. 평가내역 수정

가. 수시 강의평가내용의 수정은 담당 교강사 확인 전에만 가능함
나. 평가화면에서 본인이 작성한 내역을 클릭
다. 평업창이 뜨면서 작성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본문 직접 수정
라. 수정완료 후 '수정'버튼을 클릭하여 저장하고 '저장'을 클릭하여 이전화면으로 돌아감

5. 첨부 및 유의사항

가. 수시 강의평가내용의 수정은 담당 교강사 확인 전에만 가능함
나. 본 수시평가는 평가자의 인적사항이 교강사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다. 교강사 확인 전에는 본인이 평가한 내역을 삭제할 수 있으나, 교강사 확인 후에는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경희대학교 교무처

2015학년도 후기 평화복지대학원 신입생 모집

평화복지대학원

The Graduate Institute of Peace Studies

- UNESCO 평화교육상 수상 기관
- 전원 장학금(학비, 숙식비, 교재비) 전액 지원
- 전 과목 영어로 강의
- 해외대학 복수학위 프로그램 운영
- 해외 단기 인턴십 재정 지원
- 대학원 독립 캠퍼스

- 모집과정 : 석사과정 (전액장학)
- 모집전공 : 국제평화 / 아태지역 / 대안정치거버넌스
- 전형방법 : 논술 및 면접
- 원서접수기간 : 2015년 5월 11일(월) ~ 5월 20일(수)
- 온라인 원서접수 : <http://gip.khu.ac.kr>
 - 원서지원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함
- 전형기간 : 2015년 5월 27일(수) ~ 6월 3일(수)
- 문의처
 - 이메일 gip@khu.ac.kr
 - 문의전화 031-570-7012~6

경희대학교 평화복지대학원

‘공간’을 뛰어 넘는 IT자원의 ‘혁신’

특별기고 - 클라우드 컴퓨팅



“PC에서 올리고, 내리고… 스마트폰에서 올리고, 내리고…”

클라우드라는 용어는 몇 년 전 국내 기업의 광고 속 문구와 함께 구름 속에 데이터를 저장하고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 기반의 파일 저장소(스토리지)로 국내 사용자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것으로 기억한다. 지금은 애플, 구글, KT, SKT 등 국내·외 다양한 기업이 클라우드 기반 파일 저장소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대중에게 많이 알려지게 되었고,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으면 사용할 수 있다는 편의성으로 인해 많은 사용자를 확보하고 있다.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개념은 1990년대 말에 등장하여 오늘날까지 전 세계 IT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끌고 있으며, 지금도 많은 기술이 연구·개발되고 있다.

단말기를 통해 IT자원을 일종의 서비스처럼 사용

클라우드 컴퓨팅의 등장으로 물리적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직접 구매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사용자 단말기(PC, 랩톱, 스마트폰, 태블릿 등 다양한 모바일 기기)를 통해 IT 자원, 즉 컴퓨팅, 저장소,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을 일종의 서비스처럼 필요한 만큼 빌려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사용하는 만큼의 비용을 지불하기에 Pay-as-you-go 모델이라고 한다. 이처럼 인터넷을 기반으로 컴퓨팅과 각종 서비스를 필요한 만큼 비용을 지불하고 사용하는 기술을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한다. 여기서 클라우드(구름)란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된 IT 자원을 의미하며, 사용자는 인터넷을 통해 클라우드에 접속하여 그 구름 뒤에 감춰진 물리적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기반의 서비스와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개념의 등장과 발전의 역사를 살펴보면, 미국의 아마존닷컴이 그 중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다. 세계 최대 온라인 쇼핑 중개자로 알려진 아마존닷컴은 크리스마스와 같은 세계 최대 쇼핑 시즌에 대비하여 많은 온라인 사용자의 상품 주문을 처리할 수 있도록 수많은 서버를 계속 증설해왔다. 그러나 많은 비용을 들여 구매했던 서버가 1년 중 대부분의 시간에 제대로 가동되고 있지 않다는 점에 착안해 일반 사용자와 기업 사용자를 대상으로 일정 비용을 받고, 서버를 빌려주는 사업을 시작했다. 아마존에 비용을 지불한 사용자는 인터넷을 통해 아마존닷컴의 서버에 접속하여 원하는 컴퓨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아마존닷컴의 클라우드 서비스는 클라우드 컴퓨팅의 부흥기를 이끌었다고 할 수 있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에 따라 “서비스로서의 인프라(Infrastructure as a Service, IaaS)”, “서비스로서의 플랫폼(Platform as a Service, PaaS)”, “서비스로서의 소프트웨어(Software as a Service, SaaS)”로 구분된다. IaaS는 컴퓨팅 환경을 구성하는 인프라(서버, 네트워크, 저장소 등)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우리가 주로 이용하는 온라인 파일 저장소 서비스가 그 중 하나이다. PaaS는 웹 기반의 다양한 서비스 또는 어플리케이션 등을 개발하고 실행하기 위한 플랫폼(개발 환경 및 서버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며, SaaS는 잘 알려진 구글의 Gmail, MS Office Online, 네이버 문서도구 등과 같이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인터넷이나 웹 브라우저를 통해 서비스로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는 컴퓨터에 소프트웨어를 직접 설치하지 않고 이용이 가능하다.

클라우드 컴퓨팅의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하게 했던 핵심은 가상화(Virtualization)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IT 자원을 논리적으로 통합하여 마치 하나의 IT 자원처럼 사용하거나, 한정된 IT 자원을 논리적으로 분할하여 사용함으로써 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높여주는 기술이다. 아마존



닷컴의 사례에서와 같이 운용되고 있는 않는 서버 자원을 논리적으로 분할하여 다수의 사용자에게 비용을 받고 할당해 줌으로써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클라우드 서비스에 접속하고, 클라우드 상에서 모든 데이터 처리와 저장이 이루어지는 클라우드 컴퓨팅은 필요한 만큼의 서비스 비용을 지불하고 사용한다는 측면에서 초기 설비비용이 들지 않으며,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는 소유한 자원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어 전반적인 비용 절감 효과를 얻는다.

편의성과 확장성은 우수

정보보호 기술이 중요

사용자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도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다면 언제, 어디서나 서비스에 접속하여 이용 가능하기에 사용 편의성이 높고, 사용자에게 할당되는 논리적 자원의 크기는 지불한 비용 비례하여 자동으로 할당되기에 유연성과 확장성을 갖는다. 그러나 모든 데이터와 정보가 인터넷이라는 공간에 저장됨에 따라 사용자의 데이터와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정보보호 기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인터넷 너머에 존재하는 가상의 컴퓨팅 환경에 접속하는 클라우드 컴퓨팅은 일상생활 속에서 컴퓨터 사용방식 및 기업의 업무처리 환경에 변화를 가져왔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윈도우와 같은 운영체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용자 단말(스마트폰, 태블릿, 크롬북 등)에서도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환경만 제공된다면 무한한 컴퓨팅 환경을 구성할 수 있다. 또한 기업의 경우 정기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사원들의 컴퓨터 대신 필수적인 하드웨어 장치와 네트워크 접속장치만으로 구성된 씬 클라이언트(Thin-client) 단말기를 통해 기업 업무 처리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처리된 기업 데이터와 정보는 바로 인터넷 공간에 저장되기에 기업 내 기밀 정보를 통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정보 보안이 향상되고, 비용 절감과 업무 처리 효율성을 높여준다.

우리 생활 곳곳에서 컴퓨팅 환경의 혁신을 이어가고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이 생활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여주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모든 데이터와 정보가 인터넷으로 연결된 클라우드 사업자 서버에 저장된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친숙하기만 한 구글, 애플, MS와 같은 국내·외 거대 기업이 정보를 통제하는 독재자 “빅브라더”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일이다.

참여마당

박하연
(디자일콘텐츠학 2014)



대학생들이여, 생각하라

21세기. 돈과 물질이 세상을 지배한다는 논리가 당연시되는 시대. 인정하기 싫지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혹여 한 번이라도 이 세상을 진정으로 움직이는 것이 사실은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가? 나는 가끔 이때까지 이 세상을 지탱해 온 것은 뭐라 정의할 수 없는 추상적인 에너지들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 그리고 오늘은 그 중에서도 ‘생각의 가치’에 대해서 한 번 말해보자 한다.

여기, 앞서 던졌던 것과 비슷한 질문이 있다. 서울에서 런던까지 24시간 안에 갈 수 있는 것은 하늘을 날고 싶었던 이들의 수천 번 거듭된 고민 덕분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가? 어두운 밤, 읽고 싶은 책을 계속해서 읽을 수 있는 것은 이 어둠을 밝힐 수는 없을까. 여기에서 시작된 어떤 이의 호기심 덕분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가? 그렇다. 우리가 숨 쉬는 것처럼 당연하게 느끼고 받아들이는 모든 문명의 이기들은 처음부터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모두 인간들이 ‘생각해 낸 것’이다. 뿐만이 아니다. 각 나라의 문화, 관습, 정치, 사상 같은 정신적인 개념들도 수 세기를 걸쳐 발명된 발명품이 아니던가. 그들은 전부 질문하지 않았다면, 고민하지 않았다면, 생각하지 않았다면 결코 얻어낼 수 없었을 가치들인 것이다. 생각이란 이렇게 위대하다.

‘로봇이 인간을 지배한다. ‘는 <매트릭스>에서나 봤을 법한 괴담이, 이젠 더는 허구가 아닌 실제가 되었다.

하지만 요즈음, 생각은 상당히 희귀한 것이 되어버렸다. 책을 읽다가 모르는 단어가 나와도, 처음 와 보는 도시에 맞집이 어딘지 몰라도 아무도 진정으로 궁금해 하지 않는다. 인터넷인 연결되는 곳이라면, 답은 언제나 내 손바닥 위에 있으니 말이다. 실제로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국내 인터넷 이용률은 2012년 기준 78.4%이며,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 수는 2013년 7월을 기준으로 3,595만 명을 넘어섰다. 또,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10~54세 스마트폰 이용자 가운데 14.2%인 454만 명이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으로 분류되었다고 한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이라는 인간이 만든 거대한 로봇이 인간을 잠식하며 사고를 마비시킨다. 굳이 힘들게 껍꿍 앓으며 문제를 풀기보다는 손바닥 위의 해답지로 타인이 써 놓은 답을 보는 것이 당연한 시대가 되어버렸다. 눈을 뜨고 잠이 들 때까지, 잠시 흘로 외로울 틈도, 그 외로움의 틈바구니에서 잠깐의 사색을 즐길 기회마저도 없게 되어버렸다. ‘로봇이 인간을 지배한다’는 매트릭스에서 나 봤을 법한 괴담이 이제는 허구가 아닌 실제가 되었다. 정말이지, 이 시대 최고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그러니 1분이라도 짧이 나면 페이스북을 들여다보는 대학생들이여, 한 번 스스로를 외롭게 만들어 보라. 너무 지루하고 심심해서 엉뚱한 생각이라도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게 될 때까지. 그 엉뚱한 생각 속에서 어쩌면 뭔가 얻는게 있을지도 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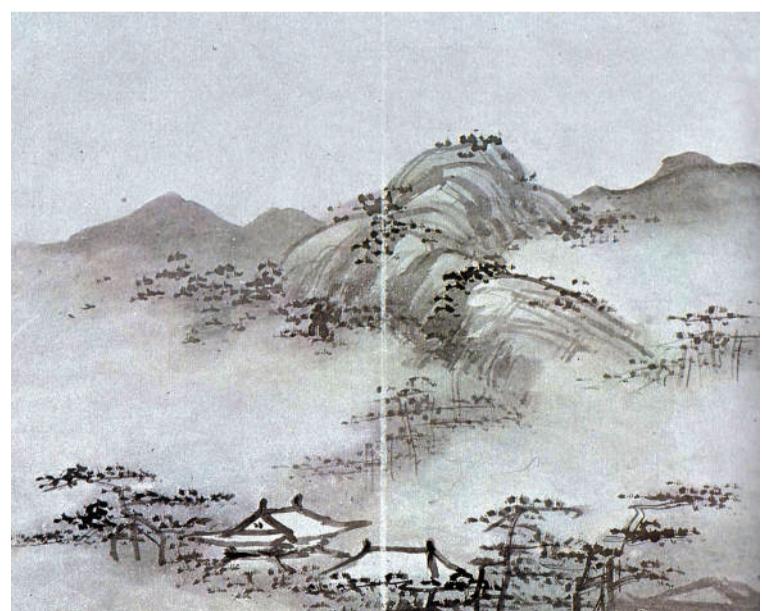
똑같은 음식, 똑같은 노래, 똑같은 화면에서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라. 어쩌면 사과가 머리 위로 떨어질지도 모른다. 먼 옛날 뉴턴이 봤던 것처럼.

▶1면에서 이어짐

그 천문의 존재와 작용이 의식되지 않는 채로 기능할 때 사람의 목숨, 자기성이 온전히 유지된다.

그러면 이것이 인간의 지식활동과는 어떤 관계에 있을까? “학문을 하는 것은 날로 더하고, 도를 추구하는 것은 날로 덜어낸다. 덜어내고 덜어내어 무위에 이르면, 억지로 하지 않아도 되지 않는 일이 없다.” 지식을 있게 할 때 그것의 없게 함도 함께 고려해야 이로움이 있다. 없게 함이란 걷어차거나 폐기하는 게 아니라 공적 차원으로 넘어서는 것이다. 그저 많이 쌓아두는 게 아니라 들고나면서 유통하는 활성적 지식이 되어야 한다. 자유자재로 활용되는 지식은 자기도 상하지 않게 하고 남도 해치지 않는다. 있게 함과 없게 함이 공동으로 생산하고 공유하는 지식은 지혜로 승화된다. 인류와 우주의 생존을 위한 지혜는 이런 있음과 없음의 흔재에서 가능하다.

《도덕경》의 저자로 알려진 노자는 주나라 왕실의 사관(史官) 즉 국립도



우리가 주목할 것은 새로운 차원의 공적 암을 창안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시사점이다.

서관장을 지낸 인물이라고 한다. 그는 그 이전과 당시의 온갖 국내외 정보·지식·학술을 다 썹어 삼키고 소화시켜 《도덕경》을 내놓았다. 그는 세상 물정의 정수만이 아니라 새롭게 우주물정에 관해서도 말한다. 그 새로운 차원의 암을 창안하는 일은 있음을 없음과 동반시킴으로써 가능하

였다.

오늘날 대학은 넘쳐나는 지식정보를 어떻게 썹어 삼키고 소화시키는가? 그런 일을 통해 다시 사회에 어떤 새로운 암을 내놓는가? 《도덕경》을 읽으면서 그 내용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주목할 것은 새로운 차원의 공적 암을 창안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시사점이다.

《도덕경》식으로 우주물정을 읽으면 어떤 답이 나올까? 우주가 태어나온 문을 빅뱅(Big Bang)이라 부르는데 대해, 우주가 되돌아가는 문을 빅크런치(Big Crunch)라 불러보자. ‘빅크런치’는 대파국을 뜻하는가? 그렇지 않을 것 같다. 우주적 날숨은 동시에 우주적 들숨과 혼재한다. 창조 따로 파국 따로란 있을 수 없다.

있게 함에 자발적인 없게 함을 동참시킨다면 장구한 우주적 생명이 가능할 것이다.

들숨과 날숨이 혼재하면서 대립하지 않고 포월(包月)될 때 생명이 존속된다. 지식의 얻음과 잃음이 혼재하면서 포월될 때 삶의 지혜(明)가 영속된다.



2015 무용학부 발전기금(장학금) 모금 바자회

아름다운 만남, 나눔 그리고 행복 찾기

2015

■ 일 시 : 5.21(목)-5.22(금) 09:30-17:30

■ 장 소 : 경희대학교 청운관 앞마당(대성교 주변)

■ 주 관 : 무용학부(교수, 학생, 직원)

■ 참석대상자 : 경희가족, 일반인



경희대학교 무용학부

School of Dance, Kyung Hee University

Contact: 02-961-0539, 0541/ dance@khu.ac.kr

스포츠

선수진 축소·감독 부재, 아이스하키부 사실상 '해체수순' 체육부 전 종목 예산 삭감 ... 지원비·선수 인원 계속 줄어

예산삭감에 불안한 체육부

이시은 기자 dtldms77@knu.ac.kr

【국제】 우리학교 체육부 소속 아이스하키부가 체육부 예산 삭감으로 인해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고 있어 '경희 체육'의 저변이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우리학교 체육부는 성적부진 등의 사유로 5월에 사임하는 아이스하키부 김영곤 감독을 대신할 후임 감독을 뽑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신입생 선발 인원을 5명에서 4명으로 줄일 예정이다. 현재 유지되고 있는 선수 인원은 총 13명. 아이스하키의 정상적인 팀 인원이 22명임을 고려할 때 선발 인원 감축과 지도자의 부재는 사실상 팀을 해체하는 것에 더 가깝다.

가장 난처한 입장은 단연 학생 선수들이다. 4학년 선수 2명, 3학년 선수 1명을 제외하고는 현재 대부분이 저학년인 아이스하키 팀은 당장 진로가 막혀버린 상황이다. 다행히 아이스하키연맹, 경기도체육회 등 외부 지원 논의가 오고 있으나 아직 공식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어 훈련은 중지 상태다. 아이스하키팀 진채운(스포츠지도학 2014) 선수는 "우리 학교는 타 대학에 비해 인원이 매우 적어 경기가 부담되는 수준"이라며 "학교 측이 인원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 주어야 하는데 오히려 반대의 입장을 보여 당황스럽다"고 밝혔다.

우리학교 아이스하키부는 1957년 창단 이후 현재까지 우승 25회, 준우승 30회의 성적을 거둔 전통 있는 운동부다. 90년대 초중반까지만 해도 각종 대회에서 우승을 훨씬했던 아이스하키부는 90년대 말부터 '체육특기생은 관련학과 이외의 대학진학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정부정책과 운영지원금 부족 등의 이유로 정상적인 선수수급과 운영에서 어려움을 겪어왔다. 결국 아이스하키부 문제는 체육부 예산 삭감 등 재정문제로 인해 사실상 '해체'라는 철퇴를 맞았다.

아이스하키부의 사례뿐만 아니라, 체육부내의 다른 종목들도 상황이 심각하기는 마찬가지다. 90년대 초반 '종별선수권대회'에서 5연패의 위엄을 달성하기도 했던 핸드볼 부 역시 비슷한 상황이다. 86학번으로 우리학교에서 핸드볼 선수로 활동했던 핸



“
아이스하키부의 사례뿐만 아니라, 체육부내의 다른 종목들도 상황이 심각하기는 마찬가지다.

”

드볼 부 김만호 감독은 "상무를 포함해 실업팀이 5팀으로 증가하는 등 과거에 비해 진로 면에서는 많이 나아졌다"면서도 "최근 운영지원비 등이 줄어 실업팀 측에서 훈련용품을 좀 더 지원받고 있다"고 밝혔다.

2000년대 초 예산 삭감으로 주요 육성 종목에서 빠지게 된 럭비는 장학금과 기숙사 혜택이 줄었다. 럭비부 안덕균 감독은 지금까지도 진행되는 예산 삭감에 대해 이제는 체념 상태라고 말한다. 안 감독은 "2년 전 스카웃 인원이 11명에서 10명으로 줄어든 것이 타격이 커다"며 "거기다 훈련 지원금마저 줄어 동·하계 훈련 등 여러 훈련에 지장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운동선수는

지원과 성적이 비례한다. 지원이 많으면 유능한 선수를 뽑아 많은 훈련을 진행하는데 예산이 적은 데다 인원도 줄어 성과도 걱정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인기종목으로 분류되는 종목 역시 예산 삭감의 바람을 피해 갈 수 없었다. 야구부 김도완 감독은 "대학 체육의 자리가 좁아지는 것 같아 안타깝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학교 전체가 그렇듯 야구부 역시 빠듯한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때문에 타 대학 야구부에 비해 장비나 용품을 넉넉하게 사지 못해 힘든 점이 있다"고 말했다. 김 감독은 "좋은 배트를 쓰면 비거리가 10m~15m 정도 더 나갈 정도로 장비와

용품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체육부 예산 삭감은 우리학교만의 문제는 아니다. 지난 2012년 성균관대는 이를바 '선택과 집중'으로 불리는 체육종목 구조조정으로 몸살을 앓은 바 있다. '성균관대 스포츠단'에서 진행한 '선택과 집중' 정책은 성균관대의 5개 단체 구기 종목 중 성적이 이나지 않는 하위 2개 종목에 대해 정리를 실시하고 3개 단체 구기 종목에 예산과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내용이다. 지난 2009년부터 시작된 '성적 수치화'에 따른 평가로 결국 핸드볼 부는 해체됐고 성적부진을 겪던 농구부는 존폐위기를 겪기도 했다.

한양대의 운동부 폐지 논란 역시 한동안 체육계의 '뜨거운 감자'였다. 한양대 대학본부 측은 2013년 말 재정난을 이유로 체조·육상·유도부 체육 특기생 전형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가 체육인들과 학부모 등의 거센 항의로 결정을 번복한 사례가 있다. 각 대학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운영비가 상대적으로 많이 드는 체육부 예산을 축소하면서 대학체육의 저변이 축소되고 있는 것이다.

전반적인 예산감축 분위기 속에서 우리학교 체육부의 어려움도 커지고 있는 셈이다. 체육부 김도균 부장은 "학교 사정이 어렵다 보니 올해 13%의 삭감을 포함, 매년 예산 삭감이 진행됐다"며 "각 종목별로 들어오는 외부 지원금이 없으면 힘든 실정"이라며 운영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미 학내 예산만으로는 해결이 힘들다는 것이다. 때문에 체육부 측은 '성적'을 중심으로 한 평가체계를 확립해 내부 경쟁을 유도하고 부진한 성적의 종목들은 조치를 취하되, 적극적으로 외부 지원을 유치하는 방향으로 운영의 기탁을 잡고 있다. 김 부장은 "체육부 소속 모든 종목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종목을 폐지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제한된 예산 속에서 평가체계는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김 부장은 "어려운 상황에 처한 종목들의 상황을 외부에 알리고 지원을 유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だ"고 말했다.

의명을 요구한 체육부 A 관계자는 "다양한 종목의 선수들이 사회로 나가 시너지 효과를 보는 게 경희체육의 가장 큰 강점"이라며 "경희체육을 위해 같이 고통을 감수하면서 공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희의 미래, 인류의 미래를 열어나가는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대학(원)생을 찾습니다.

'학문과 평화'의 경희정신을 대내외에 드높인 경희인을 추천해주십시오. '웃는 사자'와 함께 활력과 패기가 넘치는 대학공동체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구성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개교 66주년 기념 2015 경희 '웃는 사자상' 공모 2015 KH Laughing Lion Award

- 접수일시 : 2015년 4월 6일(월)~5월 4일(월)
- 대상 : 경희대학교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휴학생 제외)
- 부문 : 학술연구/사회공헌/문화예술 · 체육
- 시상인원 : 0 명
- 시상내역 : 상장 및 소정의 장학금
(단, 본교 장학규정에 의거 장학금 지급 대상 요건에 부합하는 자에 한함)
- 추천방법 : 첨부한 공적서 작성 후 추천(본인 및 타인 추천)
E-mail : pr@knu.ac.kr
- 양식 : 경희웃는사자상 추천서 - 우편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선정절차 :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
- 수여식 : 추후공지
- 문의 : 대외협력처 홍보실 02)961-0023~4